

RI 取扱免許 應試資格 大幅緩和

原子力法施行令 改正作業中

과학기술처는 앞으로 급격히 RI 이용기관이 늘어나는데 비해 RI 취급면허소지자가 크게 부족하여 이용상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원자력법시행령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.

그동안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까다로왔을뿐 아니라 시험내용도 어려워 그 합격자가 수요를 훨씬 따르지 못한 실정에 있었고 이것이 또 RI 안전관리 면에서의 불안요인을 배태하고 있었다.

특히 일반면허시험자격을 과감히 완화하여 RI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일반면허 정도는 누구나 소지하게 하는 방향으로 교도할 뿐 아니라 통신교육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거나 현장경험 없는 사람도 통신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연구중에 있다.

즉 과거에는 일반면허시험을 보려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실무경력 3년에 4주 교육훈련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실무경력 1년 또는 교육수료(4주교육 혹은 통신교육)의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응시할 수 있게 하려 하고 있다.

그리고 이공계 전문대 졸업이상은 실무경력 2년에 4주 교육을 받아야 했던 것을 삭제하고 원자력 공학과나, 핵공학과 또는 방사선학과를 졸업하면 그 대로 응시할 수 있게 했다.

그리고 특수면허나 감독면허의 경우도 실무경력 1~2년에 4주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무경력 1년에 4주이상 교육을 이수하면 응시할 수 있게 검토중에 있다.

RI 利用技術 및 安全管理을 위한 通信教育 實施計劃

本協會事業으로 推進中

본협회는 RI 취급일반면허 응시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 통신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.

금번 과학기술처가 날로 급증하여 가고 있는 RI 사용기관과 이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면허응시자 자격요건 중 4주 교육수료 대신에 통신교육으로도 대체 가능하도록 검토중에 있다.

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4주 교육수료를 위해 에너지연구소(지금은 대덕연구단지)에 가야 했던 것이 자기 집에서나 직장에서 일하면서 통신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통신교육제도는 RI 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이나 재교육을 위해서도 유효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.

본협회는 늦어도 금년 가을부터 이 통신교육 사업을 과학기술처로부터 지정받기 위하여 그 목적에 부응할 통신교육방법과 운영에 대한 사업 계획을 열심히 연구 검토 중에 있다.